

보도일시 | 2024년 2월 26일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명 | 전시기획팀      담당자 | 이소영      연락처 | ☎052-276-9674

## (재)고래문화재단, 2024 ‘울산광역시남구 문화예술창작촌’ 레지던시 입주작가 최종 선정

- 울산광역시남구 문화예술창작촌(고래문화재단 운영)의 레지던시 공간 장생포 아트스튜디오와 창작스튜디오 장생포고래로 131의 2024년 입주작가 24인을 최종 선정했다.
- 지난 1월 26일부터 2월 13일까지 입주작가를 공개 모집한 결과 총 54명의 지원자가 접수하였으며 1차 서류 심사와 2차 인터뷰 심사를 통해 2월 24일 최종 결정되었다.
- 선정된 입주작가는 ▲장생포 아트스튜디오 - 홍종오(시나리오), 이소정(소설), 남은우(아동문학), 양윤미(문학), 고예나(소설), 박기옥(소설), 한성규(소설), 박마리(소설), 류미연(문학), 안지숙(소설), 권지영(시), 주영하(소설), 배은정(소설), 윤순례(소설), 홍춘숙(소설), 김세인(소설), 지정애(시), 정연홍(시), 이나미(소설), 장성욱(소설), 이명훈(소설) 이상 21명(출퇴근형 9명, 숙박형 12명), ▲창작스튜디오 장생포고래로1313 - 반가연(그라픽아트), 용하현(회화·사진), 김소형(회화·설치)로 3명이 최종 선정됐다.
- 문학 심사위원단은 ‘숙박형 지원자와 출퇴근형 지원자들의 작가적인 면모가 대체로 훌륭하다. 서울, 경기도, 경남, 대구 등에서 지원한 작가들의 작품에 대한 애정이 큰 것을 면접을 통해 엿 볼 수 있었다. 입주를 통해 출간하는 작품 중에는 고래와 울산 남구 장생포를 배경으로 하는 작품이 있어 눈여겨 볼 수 있었다.’ 고 평하였다. 시각분야 심사위원단은 ‘시각예술분야 지원자들의 작업에 대한 고민과 열정을 엿볼 수 있었으며, 울산 남구를 소재로한 창작물을 제작하는 포부와 더불어 작가들은 지역과 장소에 관한 작업 계획을 발표하였다고 심사평을 정리하였다. 표현 재료로는 디지털 프린팅, 유리, 모션그라픽 등 다양한 재료와 장르의 작가들이 지원하였다.  
심사위원들은 각자의 목소리로 본인만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안에서 지역성을 품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총평을 남겼다.
- (재)고래문화재단 운영하는 레지던시는 본 사업을 통해 입주작가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발판으로 레지던시를 거쳐간 작

가들은 괄목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장생포 아트스데이 4기 임택수 작가는 올해 ‘동아일보 신춘문예’ 당선에 이어 장편공모상인 ‘세계문학상’ 에도 선정되었고, 그 외 장생포 아트스데이 입주작가들의 등단 소식과 출간한 작품들의 소식을 전해주고 있다. 또한 시각예술분야의 작가들 또한 레지던시를 디딤돌 삼아 서울, 청주, 전주 등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왕성한 활동을 이어나고 있다.

- 선정된 작가들은 전원 3월 5일부터 입주를 시작하며, 3월 15일(금) 입주작가 소개전을 시작으로 울산 남구에서의 작업 활동을 시작한다. 서동욱 고래문화재단 이사장은 “작가 워크숍, 교류전시, 예술가 프로젝트, 평론가 매칭, 교류프로그램 등을 통해 울산 남구의 콘텐츠를 발굴하고 문화불모지인 울산 남구를 문화예술 콘텐츠의 산실로 지속 지원하겠다”고 굳건한 의지를 밝혔다.

[문의]

- 시각문의: 052-276-0131
- 문학문의: 052-276-9674
- 접 수 처: [jspa515@naver.com](mailto:jspa515@naver.com)
- 홈페이지: 울산광역시남구 문화예술창작촌 (<https://www.uwcf.or.kr/namguart>)

상기와 같이 보도자료를 의뢰하오니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02. 26.

결 재	★주임	전시기획팀장	상임이사
	이소영	한승태	02/19 대결전순배

등록번호 : 고래문화재단-1387